

민주연구원 '3대 메가프로젝트 기획시리즈④, 지방주도성장 강화' 발간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이재영)은 7월 23일(목), 『3대 메가프로젝트 기획시리즈④, 지방주도성장 강화』 정책브리핑을 발간했다.
- 이재영 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6월 29일 청와대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는 반도체, 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3대 분야 대규모 투자계획과 함께 전력·입지 등 인프라 확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① 반도체는 ‘3S+1F 전략’으로 대체불가 K-반도체 강국 대도약, ② 퍼지컬 AI는 ‘3M 전략’으로 대체불가한 국가전략산업 육성, ③ AI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구축으로 성장 기반 확보, 이러한 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 확충을 위해 안정적 전력·용수 공급과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한다”라고 밝혔다.
- 이어 “이번 3대 메가프로젝트는 지난 십수 년 동안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잠재성장률이 하락하여,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1%대 잠재성장률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으로도 3·4·5비전(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 불)을 목표로 ‘지방주도성장 강화’를 하나의 과제로 추진한다”는 점을 밝혔다.
- 이번 정책브리핑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지방주도성장 강화」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정책적 의미를 밝혔다.
- 첫째, 3대 메가프로젝트는 기존 균형발전 정책을 넘어, ‘민간이 첨단산업에 대규모 투자’하고 산업·전력·교통·정주·대학을 묶어 ‘지방을 성장의 주체로 재설계’하는 지방주도성장 핵심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 둘째, 6월 29일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정부는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를 3대 축으로 제시하는 동시에 지방투자가 빨라지고 기업·인재가 모이는 ‘기업형 첨단도시’를 제시하며, 인재 확보를 위한 정주 경쟁력이 핵심으로 단순히 기업 유치도시가 아닌 청년·가족·대학·기업이 함께 유입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의 의미를 전달했다.
 - 셋째, 3대 메가프로젝트는 지방에 기반을 둔 구조이기에 지역청년 채용, 지역대학 계약, 지역 에너지·건설·서비스 기업 참여를 가능한 범위에서 높이고, 지역별 참여 대상들과 공생을 제도화하여 지역사회 호응을 고취해야 한다고 알렸다.
- 민주연구원 박동욱 연구위원은 “이번 브리핑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2026.6.29.)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2026.7.14.)’의 내용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에서 지방은 지원대상이 아닌 대한민국의 성장주체로 재설계되고 있다는 의미를 보다 많이 알리고자 작성되었다”고 덧붙였다.